기고

京畿道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안 통과

정 홍 식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지사

경기도 의회는 지난 12일 제226회 임시회의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도내의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3만3천876가구가 연간 21억3천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모든 지사가 지자체 및 시의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여의치 못 하던중 우리 포천지역은 시의원 및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도내에서 제일 선두로 2005년도부터 월 오천원이하 세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제 월 1만원으로 수혜 세대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혜택이 커짐은 우리 지역사회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도의회의의 조례안 통과로 인해 도내의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세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노인세대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40년간 지속해온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 대신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7년째이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아 놀고 먹는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생산적 복지'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는 미달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최저생계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20만500원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틈새계층이 생겨났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150만원) 범위 안에 들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로는 선정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정의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극빈 가정은 7%로 이 가운데 3%(약 140만명)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나머지 4%(190만여명)는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또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도 36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때에 행정기관이 이들 차상위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나 전기·가스요금 등을 체납한 차상위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이를 대납해 주는 것은 진정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한 정책이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호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의료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앞으로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이미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어떤 세대는 여전히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업무를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정부차원의 배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의 체납 보험료를 해소하는 방법인 결손처분의 적극 시행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공단과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사회단체나 정치권도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장애인세대, 모자·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나아가서 차상위 계층이 체납한 보험료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상부에 전하는 것도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일 것이다.

교육에세이 50

卒啄同時(줄탁동시)

이 호 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교직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근무해 오면서 교육 효과에 대하여 감명 깊은 장면이 많다. 또한 교육훈련 중에서도 많은 감동도 많다. 교육훈련 중에 '卒啄同時(줄탁동시)'에 대하여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한 교육자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4자 성어라고 생각했다.

어미가 품에 안은 알속에서 조금씩 자란 병아리가 세상 구경을 해야 하는데 알은 단단하기만 하다. 병아리는 나름대로 알껍데기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공략 부위를 정해 쪼기 시작하나 힘이 부친다. 이때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기다려온 어미 닭은 그 부위를 밖에서 쪼아 준다. 답답한 알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병아리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처럼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밖에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것을 「탁」이다.

'卒啄同時(줄탁동시)'가 가르쳐 주는 교훈은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卒:줄」과, 밖에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啄:탁」이 동시에 발생해야 어떤 일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나의 교직에 있어서도 卒啄同時(줄탁동시)와 같은 경험이 있다. 1977년 그러니까 나의 교직경력이 만 4년째 되던 해의 일이다. 그 해에 6학년 여학생 반을 담임했었다. 그 때 반장하던 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반장에게 "○○아! 선생님 생각인데 넌 앞으로 커서 판사 아니면 스튜어디스가 되면 좋겠다"고 자성예언을 해 주었다.

그 후 졸업 후에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인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6학년 때 내가 자성예언을 해 주었던 임○○이었다.

"선생님! 저 임○○이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에게 스튜어디스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항공 국제선 스튜어디스가 되었어요. 선생님 감사드려요. 서울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라는 낭랑한 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떨결에 받은 제자의 전화였지만 순간적으로 나에게는 교육자로서만이 느낄 수 있는 큰 감동을 받았다.

6학년 때는 장래의 꿈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시기다. 제자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장래의 꿈이 있었을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나에게서 받은 자성예언으로 인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나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연락을 준 것이다.

교육자에게는 이런 미래의 꿈나무들에게서 영글어 가는 꿈이라는 과실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보람 있는 직업이다. 담임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나름대로 자기만이 지닌 특기와 특성이 있다. 때로는 담임의 취향과 달라서 외면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아무쪼록 교사에게는 비범한 혜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 각자가 지닌 특기와 특성을 살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卒:줄),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啄:탁)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듯 애벌레가 변태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 학생도 새로운 모습의 격상된 자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교사의 사명이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자기 주도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지니도록 부단한 노력과 자기 연수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담임하고 있는 학생 각자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이 생겨 '卒啄同時(줄탁동시)'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우리의 교육에서 감당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맹자의 四端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이에 대해서도 그 위기나 불행을 보면 측은히 여기게 되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 인(仁)이고,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릇된 것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인 수오지심[羞惡之心]: 의(義)이며, 남을 공경하고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辭讓之心]: 예(禮)이며, 마지막으로,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등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是非之心]: 지(智)이다.

특별기고

가을 운동회 유감(有感)

박 동 규
영북노인대학장

추석을 전후해서 몇 개 학교 가을운동회를 관람할 기회를 가졌다. 60여 년 전 초등학교 재학시절의 운동회를 연상케 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지난날의 가을운동회와 비교해보곤 했다.

필자가 재학하던 초등학교는 8·15 해방 수 년 전에 간이(簡易)학교 자리에서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학생수가 200여 명에 불과했는데 매년 빠짐없이 가을운동회가 개최되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 지역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동네잔치를 벌리게 된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편리할 리 없고 해서 운동회 날에는 이웃 동네 사람들과 만남의 날이기 때문에 만남의 장이 학교운동장이요 만남의 날은 운동회 날이다. 그 당시는 통신수단이란 편지를 주고받아 소식을 전하고 접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정겨운 만남의 기회가 바로 운동회 날이기에 온통 그날이 오기를 너도나도 고대하게 된다.

운동회 날이 잡히면 학생들은 손꼽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며 운동연습을 1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미리 계획대로 총연습을 하게 되는 그 날이 소운동회 날이다.

입장에는 용진문(勇進門)을, 퇴장에는 개선문(凱旋門)을 통해서 입·퇴장하게 되는데 솔가지를 꽂아서 만든 문을 미리 세우고, 만국기는 지금처럼 인쇄한 것이 아니고 물감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려서 게양하게 된다. 하늘에는 만국기가 휘휠 펄럭이고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한창 피어 한들한들 장관(壯觀)을 이루게 된다.

8·15이후 머리띠의 빛깔이 청·홍이던 것이 붉은 색은 공산주의 즉 빨갱이를 상징한다고 인식되어 좌우이념(左右理念) 갈등이 심각하던 때라 붉은 색을 기피해 흰색으로 대체(對替)했다. 그 후 다시 청백 모자로 바뀌었고, 지금처럼 체육복은 있을 리가 없었고 무명천에 검게 물들인 팬티에 흰줄이 양쪽 그어졌는데 여학생은 양 끝에 고무줄을 넣었던 것으로 촌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 체육복이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수공(手工) 제품이다.

전교생을 청백으로 나누어 동서로 따로 자리를 해서 응원이 이어지고 3·3·7박수를 치며 목청껏 부르짖고 교사도 양편으로 나눠 승부를 가리게 된다.

경기는 개인경기 100m 달리기를 비롯해 경기가 진행되는데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기마전, 장대높히기, 모자뺏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씩씩한 기상과 용맹을 기르는 경기로 지금까지 전래해오니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감회(感懷)가 자꾸 새롭기만 하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경기인 바구니 터트리기는 옛것이 일부 학교에는 전래해오고 있는데 표어의 내용이 바뀐 것이 특이했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과 각종과일·계란·고구마·밤 등을 가족은 물론 동네사람들이 함께 죽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운동장 가에는 천막을 쳐 놓고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돼지내장과 토란으로 국을 끓여 국밥을 팔고 있었는데 그 국을 사다가 도시락밥을 국에 말아 먹던 그 맛은 별미(別味)로 당시 풍속도(風俗圖)를 연상해 보게 된다. 삶은 계란은 최상의 먹거리로 각광받았는데 지금은 그 당시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세월 따라 입맛도 바뀌게 되나보다.

모 여중 교감 재임당시 모 초등학교 가을운동회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장을 대신해서 축하차 주임과 동행해서 접수처에 봉투를 접수시키자 접수자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슬쩍 확인하고 동편 교실로 안내되어 교실에 입실하자 학부모가 국밥을 주기에 막 먹으려는 순간에 학교장이 찾아와 다시 안내되어 서편 교실로 갔더니 그 곳에서는 국밥 외에 술과 안주 그리고 떡까지 차려져 있어 진수성찬(珍羞盛饌)으로 먼저 안내되었던 상차림과는 전연 다른 상차림이 아닌가. 손님에 따라서 차별 대접을 하는 것 같았는데 필자는 당시 잠바차림이기에 국밥만 대접하는 교실로 당초에 안내되지 않았는가 한다. 저녁에 내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 한다.' 속언(俗言)을 인용해 가면서 일러주어서 그 다음부터 외출 시에는 정장차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그 후는 외출이나 방문 시에는 가급적 정장(正裝) 차림을 하게 되었다.

그 옛날 가을 운동 때는 운동회 본부 앞에는 협찬(協贊)이니 기부(寄附)를 하는 사람은 방명록(芳名錄)에 기록하고 창호지에다가 일금(一金)이라고 쓴 다음 액수와 주소 성명을 크게 써서 새끼줄에 죽 걸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를 권유(勸誘)하게 되는데 이에 참여한 사람은 그 당시는 유지나 기관장으로 다른 사람의 선망(羨望)의 대상이 되었다.

그 동안 금품의 접수는 오랜 관습(慣習)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간에도 접수처를 마련하고 방명록(芳名錄)을 준비해 놓고 금품접수를 하는 경우가 눈에 띄는데 웬만하면 이런 모금은 삼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운동회장 입구에서 접수를 하게 되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어 운동회 참가를 주저하게 되고 관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교장 재임 11년 동안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에서 금품접수를 한 적이 없고 인근 교장에게 수차 자제할 것을 설유(說諭)했는데 학교에서는 운동회 경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게 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 부담 없이 운동회에 참여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어떨까 한다.

가정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60년 전 당시는 상품이란 고작 저질의 공책과 연필이 주종이었는데 지금은 학용품의 질을 높여서 시상하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100m 경기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당시 재학생 가운데는 장가를 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지금의 중·고학생 연령에 해당되어 필자가 최연소자라 꼴지를 면할 수 없어 100m 경기 참가가 싫었던 일이 기억되기도 한다.

금년에 참관한 학교에서는 3위까지 시상하고 있었는데 경기에서 입상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닌가 한다. 1~3등까지만 시상하지 말고 조별 참가자에게 등차별로 전원 시상하는 것도 배려해 봄도 어떨까 한다.

오늘날 부모의 과보호(過保護)와 영양의 과잉섭취(過剩攝取)로 심신이 유약(柔弱)한 학생들에게 활기차고 씩씩하게 뛸 수 있는 경기와 단합과 화합을 기할 수 있는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기로 유희(遊戱)나 오락(娛樂)게임을 보게 되어 퍽 안타깝기만 하다.

입장과 퇴장 시에는 발과 구호에 맞추어 뛰어서 입·퇴장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 행진가를 함께 부르며 율동(律動)이 유지되었으면 퍽 좋겠다.

모든 경기는 룰이 있어 꼭 지킬 수 있게 지도를 하고, 100m에서 출발과 결승을 하는 요령까지 지도해야 한다. 등수만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뛰게 하여 참가 학생이 비록 등수에 들지 않더라도 최후까지 뛰게 사전지도를 하도록 해야지 입상권 내에 들지 못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야 한다.

제주경기에서 배턴을 주고받는 요령과 추월(追越)하는 요령도 함께 지도해야 하는데 결과만인 승부와 등수만 가리는 것은 지도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100m 뛰기는 학교체육에서 중요시하여 지도해야 한다. 모든 체육활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초교육의 일환(一環)으로 해서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

모 학교 운동회에서 전교사가 입장·퇴장을 함께 하고 교사들에게는 준비체조·정리체조를 학생들 대열 앞에서 함께 하고 있었는데 솔선수범(率先垂範)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체(要諦)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교사들의 참여의식(參與意識)과 사제동행(師弟同行)은 교육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賦與)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런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강조해서 지도했다고 생각한다.

운동회는 치밀(緻密)한 계획과 준비로 경기 종목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교직원의 관심과 학부모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기내용은 충분한 검토로 능력차 내지 남녀 성별로 적정한 경기를 선정하되, 교육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기에 불가피하여 불참자와 신체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配慮)가 필요하고 경기에서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승부에만 집착(執着)하지 말고 모든 경기의 룰을 지키고 정정당당(正正堂堂)하게 운동정신을 발휘토록 해서 즐겁고 활기찬 운동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스파게티 전문점! 휘오레

대표 김찬미

찾아오시는 길

메뉴

■크림 베이스 ▶ 해물 크림 스파게티, 까르보나 크림 스파게티, 그린녹차 스파게티
■브라운소스 베이스 ▶ 콤비네시션 스파게티, 치킨 스파게티 (자연 베이스) 봉골레 스파게티
■주요리 ▶ 안심 스테이크, 휘오레 정식, 함박스테이크, 돈까스, 피자치즈 돈까스, 돈까스와 오므라이스, 생선까스, 낙지 볶음밥, 치즈 감자 그라탱, 김치 볶음밥, 어린이 미키마우스, 해물 볶음밥 (음료) (맥주) (생맥주)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 ■Tel. 031)544-3939 H.P 017-292-5543

귀사의 제품 포장에는 EPS 산업이 함께 합니다!

고품질! 저단가!

• 진공선형
• 게도바시
• 고주파가공
• 건축자재

EPS EVERGREEN PACKING SYSTEM

주소 :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237-3
전화 : 031)543-8338 H.P 011-796-4811
www.epsko.co.kr

메 뉴
호프(생맥주)
카프리
스타우트
밀 러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코 로 나
Coffee
녹 차

그동안 Just Blues를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50~80년대
올드팝&째즈&블루스
"100인치 대형화면"
스포츠중계

Just Blues
T. 544-4111

대표 이규연